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Drewry Shipping Consultants, 향후 5년 내 글로벌 항만투자사업 활발 예상-----	2
□ 호주 Toll Group, 독일 해상 포워더 AWG(Andree & Wilkerling) 인수-----	3
□ 아프리카 개발은행, 토고 로메항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에 용자 승인-----	4
□ 중국 광시자치구 난닝시, 대규모 물류인프라 건설 추진-----	5

1) 연락처: 김찬호 전문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Drewry Shipping Consultants, 향후 5년 내 글로벌 항만투자사업 활발 예상

- 영국의 Drewry Shipping Consultants(DSC)사는 지난 2009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계획되었던 터미널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으나 향후 5년 이내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지난 8월 3일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Annual Review and Forecast'를 발표하면서 DSC사는 이 같이 전망하였는데, 이는 세계 여러 곳에서 항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시설 이용률(Utilization)이 적정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
- DSC사가 예측한 2016년 지역별 컨테이너터미널의 시설이용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극동 아시아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97.8%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93.5%), 중동(88.6%) 등의 순이며, 전 세계 평균은 2010년 평균 66.5%에서 2016년 84.2%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 컨테이너터미널 시설이용률 전망(2016)>

지역	2010년 평균(%)	2016년 전망(%)
극동아시아	69.3	97.8
동남아시아	72.2	93.5
남아메리카	66.3	87.0
중 동	76.0	88.6
중앙아메리카	67.3	83.2
아프리카	70.4	78.9
북아메리카	54.1	67.1
북 유 럽	60.2	66.2
남아시아	76.4	61.2
세 계	66.5	84.2

- 이와 더불어 DSC사는 신규 컨테이너터미널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 항만에 대한 M&A 또는 민영화 작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GTO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새롭게 글로벌 항만물류시장에 참여하는 터미널 운영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자료 : CI-online, 2011.08.03; DSC사 홈페이지.

김찬호 전문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호주 Toll Group, 독일 해상 포워더 AWG(Andree & Wilkerling) 인수

- 호주 시가총액 6위 기업인 Toll Group은 독일의 해상 포워딩 기업인 AWG(Andree & Wilkerling)을 인수하였다고 지난 7월 말 발표하였음
 - AWG는 소매, 소비재, 화학품 및 강철재 분야에서 해상 수출입에 특화된 기업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Toll Global Forwarding으로 편입될 예정임
- Toll은 이번 M&A를 통해 독일 및 유럽의 거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AWG의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 영업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 Toll Global Forwarding의 CEO인 Hugh Cushing은 'AWG는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 특화하여 LCL 및 FCL 화물의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화물의 콘솔을 담당하는 독일의 선두물류기업' 이라고 평가하고,
 - AWG 인수를 통해 '해상과 항공 포워딩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독일 및 유럽의 거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음
 - 또한 Cushing CEO는 AWG의 2010년 매출액은 1,520만 유로(약 230억 원)이며, 독일의 무역 호조 등으로 인해 인수 첫해부터 주당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한편, Toll Group은 지난 5월 말 중국의 자동차 3PL기업인 Tianjin Anda Logistics의 지분 40%를 인수하였음
 - Tianjin Anda Logistics는 2010년 4억 위안(약 69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Toll Group은 옵션 계약 등을 통해 향후 2년 이후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음
- Toll Group은 2011년에 들어 벌써 4건의 M&A를 실시하며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Toll Group은 지난 2월에는 두바이 포워딩 기업인 SAT Albatros를, 3월에는 호주의 광물분야 물류기업인 Mitchell Corp을 인수하였음

※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87호 참조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1.07.29; toll.com.au; 각 보도자료.

송주미 전문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아프리카 개발은행, 토고 로메항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에 용자 승인

- 2011년 7월 15일,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AfDB) 이사회는 토고 로메항(Lome port)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에 6,000만 유로의 용자 제공을 승인함
 - 동 프로젝트는 신규 컨테이너 환적 터미널의 건설, 개발과 운영을 포함하며, 토고 회사인 Lomé Container Terminal S.A¹⁾가 추진할 예정임
 - 신규 터미널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 150만TEU이며, 35년간 항만 운영권을 제공 예정
- 기니만(Gulf of Guinea)에 위치한 로메항은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의 심수 항만 중 하나이며, 내륙국가인 말리,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와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의 관문으로서 서아프리카 연안지역의 환적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 토고 국내화물 증가와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말리 및 나이지리아의 국경무역 등 지역 화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메항의 확장 필요성이 대두됨
 - 로메항은 일반 화물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Ro-Ro선, 탱커선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현재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22.1만TEU로 추정됨

<토고 위치>



<Lome항 위치>



자료: www.ghanabusinessnews.com, 2011.07.21.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2008년 로메항 운영권(35년)을 획득하였으며, 10년 연장가능한 옵션계약을 체결함.

□ 중국 광시자치구 난닝시, 대규모 물류인프라 건설 추진

- 난닝(南寧)시는 중국 광시성(廣西省)의 성도이며 주강(珠江) 중류지역의 경제중심지임
 - 광시성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과 연계되는 핵심지역이며 연평균 13%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아세안 10개국 물류시장 개방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제조, 무역, 물류, 교역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 베이부완(北部灣) 항만당국은 아세안과의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베이부완 지역의 친저우항(欽州港), 팡청항(防城港), 베이하이항(北海港), 티에산항(鐵山港) 등을 통합하여 서남부 최대의 벌크 허브를 구축하고 있음
- 난닝시는 시의 경제 발전과 아세안과의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인프라 건설계획인 '화남성(華南城=화남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화남성은 사징대로(沙井大道) 서쪽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500만㎡, 총 투자액은 9억 3천만 달러이며 2기로 나누어서 건설할 예정임
 - 의류, 화학, 종이, 금속, 건축자재, 전자제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의 유통시장과 이와 관련된 물류센터, 물류거래시장 등의 건설 추진 중
 - 이는 난닝시 및 광시지역의 제조, 상업, 물류업을 지원하는 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여 베이부완 항을 이용, 아세안과 연결하는 제조, 가공, 무역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임
 - 향후 2~3년 내에 3만 여개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며 연간 거래금액은 155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난닝 화남성 조감도>



자료 : 全國物流信息網 - 2011.08.01

이주호 전문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
 강지현 연구원(☎ 02-2105-2967, jhkang0813@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